

#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두고 온도차

### 보수 "사회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해야" 진보 "민주주의에 자유보장 등 다양한 의미 내포"

교육부가 2020년부터 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 기존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한 가운데 진보와 보수는 이번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보수세력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다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반면 진보세력은 "민주주의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자유보장,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 등 다양한 의미가 내포돼 있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환영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

교조)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에는 자유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중요한 가치가 담겨있다"며 "자유를 내세우고 평등 등 다른 가치를 부차적으로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냐"는 일각의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면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평등이나 인권 등 다른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는 1972년 7차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했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민주주의의 대

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쓸 경우 1972년 이전의 민주주의 역사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국가, 즉 복지국가의 이념인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새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환원한 것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은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것은 역사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헌법전문과 제4조에 '자유'가 명시돼 있어 헌법적 가치를 교과서에 심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발했다.

이러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라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이명박정부 당시 '민주주의'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를 교과서에 반영한 것"이라면서 "당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을 정부가 공문화 없이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고치려 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일각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인민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지향하는 운동이 있었고 일부 교사들이 민주주의를 잘못된 개념으로 해석해 가르치거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을 옹호하는 교육을 했다"며 "학교에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교육을 용인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뉴시스

## 해외서 공부한다! 전북대 오프캠퍼스 발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글로벌 모험 인재 양성을 위해 오프캠퍼스(Off-Campus) 프로그램을 통해 하계 방학에 대규모 학생들을 해외 자매결연 대학에 파견한다.

전북대는 지난 22일 오후 4시 전대학술문화관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하계 방학 및 2학기 오프캠퍼스 발대식을 갖고 출발을 알렸다.

이번에 해외 대학에 파견되는 학생은 모두 501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LA, 중국 상해대학, 영국 센트럴랭커셔대학,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등 16개국 44개 대학에서 공부한다.

이들은 최대 1년까지 해외 대학에 머물며 현장형 아학수업과 기초 전공수업 등을 듣고 학점도 인정받게 된다.

또한 현지 가정에서의 홈스테이와 봉사활동, 인턴십, 문화체험, 현지 기업체 탐방 등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어서 해당 국가나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타문화 포용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정성석 대외협력부총장은 "오프캠퍼스는 우리대학 학생 누구나 한 학기 이상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글로벌 감각까지 익힐 수 있는 우리대학만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라며 "무한 경쟁시대를 뚫고 당당하게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018년도 전북대학교 하계 해외봉사단 발대식이 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전대학술문화관에서 열렸다고 22일 전해졌다. 사진은 해외 봉사에 참가한 학생들이 모자를 던지며 발대식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모습.

## 전주대, My Stage와 협약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화증진 기대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예술기획 My Stage 및 효자문화의 집(대표 선홍진)과 지역 연계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지역의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및 공유 ▲관련시설 및 자

료의 상호 교환과 활용 ▲현장실습 및 취업유대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양 기관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기획 My Stage는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문화예술 기획, 디자인, 홍보, 컨설팅, 영상 사업 등을 진행하며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예술기획 My Stage 선홍진 대표는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라며 "이번 협약을 청년 일자리가 확대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식의 의미를 더했다. /김재훈 기자

## 외국인 유학생, 전북대 가장 선호한다

###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합격자 19명으로 국내 1위 전북대 브랜드 상승... 외국 학생들 선호도 높아져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정부 초청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 국립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의 대외 브랜드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국립국제교육원이 발표한 GKS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합격자 발표에 따르면 전북대에 지원해 합격한 외국인 학생이 모두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대 법인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부산대가 18명, 경북대 17명, 전남대 13명, 충남대 12명 순이다.

이번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선발에서 전북대가 국립대 1위를 차지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전북대의 우수성이 세계 유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전북대는 가장 한국적인 대학이자 연구중심대학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7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자 양성을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전국 5위권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전북대는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선발된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들은 2019년도 전북대에 입학 후 교육부에서 등록금 전액과 월 90만원의 생활비, 항공료, 보험료, 논문 인쇄비, 정착 지원금 등 1인당 연간 2천여 만원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수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유치나 국제교류 활동, 유학생 교육 및 관리 지원 등을 통해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의 면모를 다져온 대학의 위상이 세계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외국인 학생의 입학에서 졸업, 그리고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유학생들이 가장 공부하고 싶은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교육청, 내달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 승진 110명 · 전보 210명 · 신규임용 36명 공로연수 · 정년 · 명예퇴직 등 458명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8년도 7월 1일자로 3급 부이사관 승진 1명을 비롯하여 지방공무원 승진 110명과 전보 210명, 신규임용 36명,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등 총 45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방공무원의 승진자는 총 110명으로 각각 교육행정 3급 1명, 6급 23명, 7급 66명과, 전산, 사서, 시설, 공업, 시설관리, 운전, 사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전화상담운영 등 110명이다.

지방부이사관은 고광휘 마한교육문화회관이 행정국장으로서 박해정 행정국장이 전북교육문화회관장으로 발령됐으며, 지방서기관 고광록 김계교육문화회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마한교육문화회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방서기관은 장호람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이 감사담당관 감사팀장으로, 최성희 감사담당관 감사팀장이 총무과장으로, 이현규 총무과장이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구원종 시설과장이 김계교육문화회관장으로, 신희섭 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장이 시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5급 이하 교육행정직의 전보는 전보회관제에 의해 210명이 본인의 희망지역에 배치되었다.

아울러 공직에 입문하는 교육행정 36명이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발령했다.

한편 3급, 4급, 5급 인사발령자 및 도교육청 전출입 6급 이하 공무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신규임용 공무원은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임용장 수여식이 있으며 7월 1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김재훈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